

고대 제사 기록의 보고



오키노시마 섬의 거압군에는 방대한 봉헌품과 함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기적으로 보존되어 온 고대 제사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중한 봉헌품이 시기별로 서로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왔습니다. 4세기 후반부터 9세기 말에 걸쳐 약 500년 동안 이 섬에서 열렸던 제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의 유례가 없는 유적입니다.

7세기 후반에는 공통의 제사가 오시마 섬이나 규슈 본토에서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키노시마 섬의 신에 대한 신앙은 무나카타 3여신에 대한 신앙으로 이어져 현대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이루어진 교류의 증거

항해안전을 기원하며 열렸던 오키노시마 섬의 고대 제사와 관련된 풍부한 봉헌품은 당시 일본이 동아시아의 다양한 지역·국가와 활발한 대외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한반도와 중국대륙, 멀리 페르시아(이란)에서 건너온 물품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에 모셔져 있는 무나카타의 세 여신은 원래 이항로를 지키는 신이었습니다. 섬나라인 일본의 문화 형성에 있어서 바다를 건너 이루어진 교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시마 항로 시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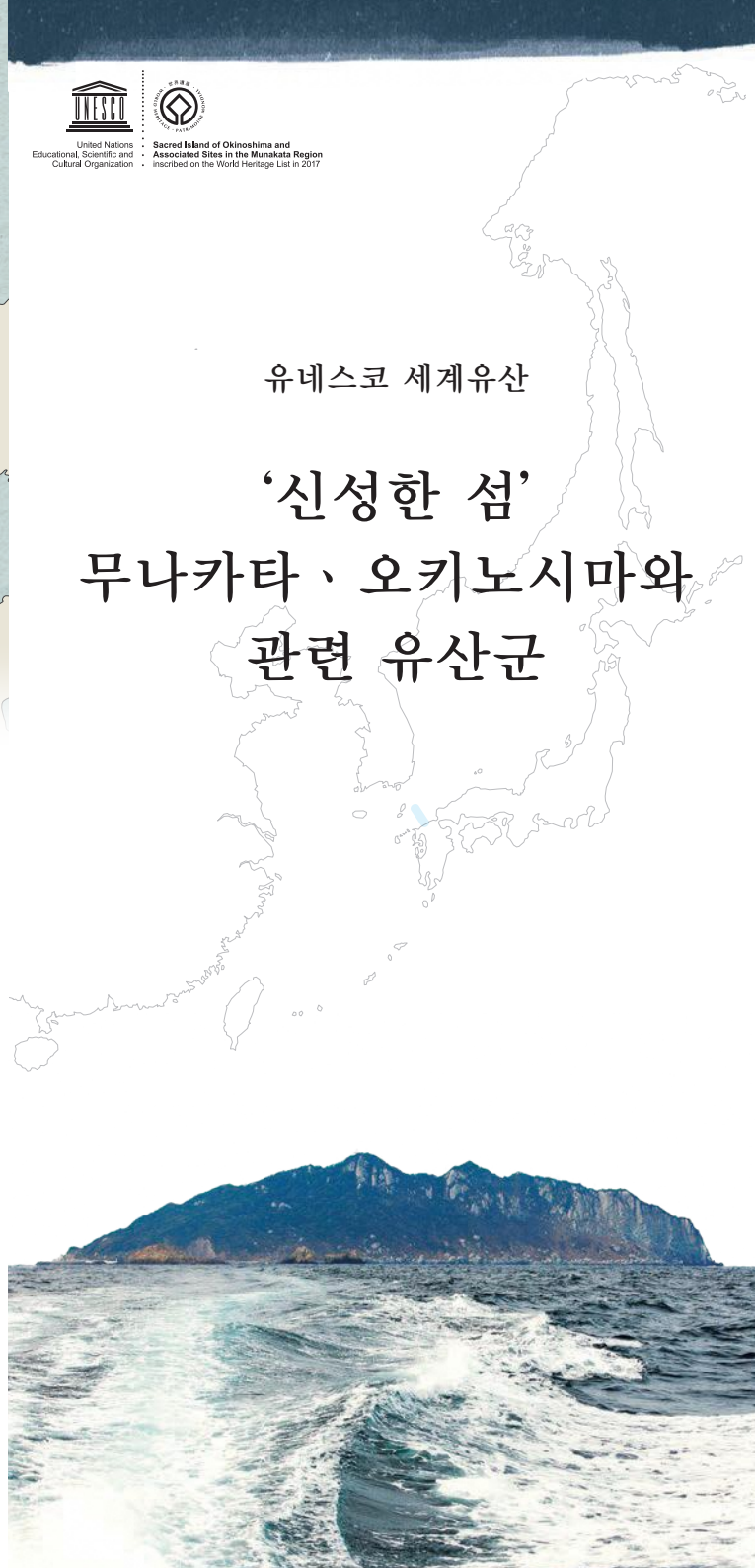
편명	고노미나토 출발	오시마 출발	4	13:50	13:00
1	7:40	6:50	5	15:30	14:40
2	9:25	8:35	6	17:10	16:20
3	11:15	10:15	7	19:00	18:00

● 소요시간 / 15~25분
● 편도 요금 / 560엔 (어린이280엔)

전시·해설 시설

- 무나카타타이샤 신보관
개관/9:00~16:30 연중무휴
● 오키노시마 섬 봉헌품과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의 역사
- 바다의 길 무나카타관
개관/9:00~18:00 월요일 휴관
● 유산군 전체의 해설과 오키노시마 섬 3D 시어터
- 오시마 교류관
개관/10:00~16:00 화요일 휴관
● 오시마 섬의 구성 자산
- 카메라이 스테이지
개관/10:00~20:00
화요일과 매월 마지막 수요일 휴관
● 신바루·누야마 고분군
·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 평일 휴관

‘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세계유산 추진회의
 사무국: 후쿠오카현 세계유산 등록추진실
 전화: 092-643-3162 팩스: 092-643-3163
www.okinoshima-heritage.jp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Sacred Island of Okinoshima and Associated Sites in the Monakata Region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2017

유네스코 세계유산

‘신성한 섬’ 무나카타·오키노시마와 관련 유산군

‘신성한 섬’ 을 숭배하는 문화적 전통

규슈 본토에서 약 60km 떨어진 오키노시마 섬과 오시마 섬, 그리고 규슈 본토에 위치한 그 관련 유산군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발전 계승되어 온, 신성한 섬을 숭배하는 문화적 전통이 잘 드러나 있는 증거입니다.

오키노시마 섬은 일본열도, 한반도 및 중국대륙의 여러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해왔으며, 4세기 후반부터 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항해안전과 관련된 고대 제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은 오키노시마 섬에 깃든 신에 대한 신앙을 통해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을 길러 왔습니다. 오키노시마 섬은 세 여신을 모시는 무나카타타이샤 신사의 일부로 섬을 둘러싼 금기와 요배의 전통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신성한 존재로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시마 섬의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에서 보이는 오키노시마 섬

무나카타 지역의 주민들이 길러 온 신앙의 전통

무나카타타이샤 신사는 약 60km범위에 위치한 3개의 따로 떨어진 신앙의 장소, 즉 오키노시마 섬의 오키쓰미야 신사, 오시마 섬의 나카쓰미야 신사 그리고 규슈 본토의 헤쓰미야 신사로 구성된 큰 신사입니다. 세 개의 신사 각각이 고대 제사 유적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신앙의 장소입니다.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이 오키노시마 섬에 깃든 신에 대한 신앙을 통해 길러 온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은 오늘날까지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무나카타타이샤 오키쓰미야 신사
- 다고리히메노카미 신 -
오키노시마 섬
고야지마 암초
미카도바시라 암초
텐구이와 암초

일러스트/기타노 요코



내해가 펼쳐져 오시마 섬과 함께 해상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무나카타타이샤 헤쓰미야 신사

무나카타야마 산 중턱의 다카미야 제장 부근에서 오키노시마 섬과 공통된 고대 제사가 열렸으며, 그 후 경내에 신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내해였던 쓰리카와 강을 따라 입지한 무나카타의 세 여신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무나카타타이샤 나카쓰미야 신사

오시마 섬의 미타케산 산정에서 오키노시마 섬과 공통된 고대 제사가 열리면서 산록에 신사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참배길로 연결된 산정에서는 오키노시마 섬을 비롯해 주변 해역과 육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baru, 누야마 고분군

오키노시마 섬에 대한 신앙의 전통을 키운 고대 호족 무나카타 가문의 존재를 증명하는 분묘군입니다. 전방후원분 5기를 포함한 크고 작은 41기의 고분이 세워진 대지 위에서는 오시마 섬과 오키노시마 섬으로 이어지는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오키쓰미야 신사 요배소

오시마 섬의 북쪽 해안에 서 있으며, ‘신성한 섬’ 오키노시마를 신으로 모시면서 멀리서 참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맑은 날에는 오키노시마 섬 모습이 잘 보입니다. 오키노시마 섬에 대한 신앙의 전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